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가치관과 인간생명을 중시하는 가치관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상원은 총신대학교 신학과(B.A.)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Th.M.)와 네덜란드 캄펜신학대학교(Th.D.)를 졸업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와 네덜란드 우트레히트 대학교에서도 공부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조직신학 교수로 있으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와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비행기는 운항할 때 두 번 위기를 만난다. 한 번은 이륙할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착륙할 때다. 비행기는 짧은 이착륙의 시간을 안전하게 넘기면 대체로 안전한 순항이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한 평생 사는 동안 두 번 큰 위기를 만난다.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는 때다. 왜 인간은 이 두 순간에 위기를 만나는가? 이 두 순간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의 존폐여부를 전적으로 외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세상에 나와 유아기를 거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노후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정신과 신체의 기능들이 현저

하게 떨어져 임종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동안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생명윤리에서는 경계선상의 상황(the borderline situation)이라고 한다.

경계선상의 상황에서는 외부인들의 결단이 관건이 된다. 외부인들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16:26)”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절대적인 생명존중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경계선상의 인간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속의 외부인은 절대적인 생명존중사상과는 대립되는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경계선상에 처한 생명은 위기를 만난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이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부인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관들 가운데 한 축은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물론(materialism)이며,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기주의(egoism)라고 할 수 있다.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실재의 전부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며, 실재한다 하더라도 컴퓨터의 가상현실과 같은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인간을 영혼이라는 실재가 없이 신체적 생명만으로 이루어진 존재 곧,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형편없이 추락한다. 또한 유물론은 하나님을 삶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환영으로 인식한다.

진화론 생물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종주의(specism)의 배경에는 유물론이 깔려 있다. 종주의는 두 가지 논증에 근거한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이유는 기억, 도덕의식, 합리적 사고 등과 같은 정신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 기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논증이다. 예컨대, 혼수상태에 빠진 인간은 동물과는 정말로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또 하나의 논증이 전개된다. 이 논증은 인간과 동물은 종이 다르다는 논증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과 다른 것은 쥐와 고양이와 다른 것과도 같다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의 생명은 다른 동물의 생명과 같은 차원의 생명이라는 뜻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혼수상태의 환자를 포함하여 경계선상의 상황에 처한 인간은 인간으로서 대접받기 어렵게 된다.

유물론은 하나님의 실재를 부인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법칙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 인간 생명의 존폐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궁 속에 있는 배아나 태아의 존폐여부를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간관이나 도덕적 규범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않고 임신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면 낙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가 허용될 것이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는 태도다. 생명윤리의 영역에서 이기주의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희생시키는 잔인한 태도가 정당화된다.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배아 줄기세포추출연구는 배아의 파괴가 불가피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외부인들이 경계선상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안내해 주는 가치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지평 안에서”(in the horizon of living God) 실재하는 존재로 파악하며,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철저한 이타성(altruism) 안에서 파악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인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지평 안에서 파악한다는 말은 많은 함의를 지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두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함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는 뜻이다. 표준적인 개신교신학에서는 골로새서 3장10절과 에베소서 4장2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완전한 의로움), 거룩(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완전한 거룩성)이 회복되었다는 진술로부터 역으로 추론하여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세 가지 하나님 형상의 구성 요소들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이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창9:6). 이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형상이라는 말은 닮은 부분이 있다는 뜻인 바,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단지 신체적 생명만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체와는 독립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다음(창2:7; 숙12:1), 창조하신 영혼을 인간 안에 넣어 주셨다. 한번 창조된 영혼은 결코 소멸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흙으로 만들어진 신체 안에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신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의 함의는 인간의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원리인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인간의 신체는 언제부터 작동을 시작했다가 언제 작동을 멈추는가? 현대의 생물학은 인간의 신체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작동을 시작하여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추는 순간에 이르러서 작동을 멈추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 순간부터 심

폐사의 순간까지 인간은 영혼이 내주하면서 영혼과 함께 신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존재이다. 물론 신체가 해체된 후에도 영혼은 소멸되는 일은 없다. 신체가 해체된 이후 인간은 천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살든지 양자택일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인간관이 생명윤리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는 배아파괴가 수반되는 모든 단계에서의 낙태, 배아복제, 줄기세포추출, 시험관수정은 살인행위이며, 혼수상태인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안락사도 살인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평 안에 실재한다는 말이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는 인간은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결정, 규범, 주권적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극히 다양하고 풍부한 적용 가능성을 가지는 진술인데, 특별히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욥1:21).”라는 말씀이나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12:10).”라는 말씀이 잘 보여 주는 것처럼, 한 인간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며, 한 인간의 생명의 종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으로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생명의 탄생과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또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라는 시편 24편1절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인간 생명의 탄생 및 종결에 자의적으로 관여하는 것

은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이타주의를 지향한다. 인간들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타적이어야 한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22:39)는 명령에서 “사랑하라”는 동사는 헬라어 아가파오인데, 아가파오의 명령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떤 대상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이 명령이 생명윤리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사뭇 크다. 왜냐하면 생명윤리의 대상들은 모두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임신부에게 있어서 아이는 결코 호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며, 혼수상태에 빠져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결코 호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아가파오는 이들을 호감을 주는 대상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 임신부나 혼수상태의 환자등과 같이 장기적인 간병과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가족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관점에서 보다는 자신들에게 끼치는 시간적이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이나 환자를 대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아가파오는 이 태도를 180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호감을 주지 못하는 아이나 환자를 호감을 주는 대상으로 대우하고, 아이나 환자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

사랑의 강령과 나란히 기독교윤리학의 보편적 규범의 또 하나의 기둥이 되는 황금률(마7:12)은 아가파오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준다. “다른 사람

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라!” 배아파괴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배아복제나 배아줄기세포추출직업에 몰두하고 있는 생명공학자도 배아 시절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만일 그가 배아의 입장에서 서 있어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려고 할 것인가? 임신부가 뱃속 아이의 입장에 있어도 낙태에 동의할 것인가? 자신의 가족이 혼수상태에 처해 있어도 수액, 산소, 영양분과 같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명은 어떤 단계에 처해 있든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총합보다 더 무거운 것인 바, 이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근원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유물론과 이기주의의 가치관으로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지평 안에 있는 인간과 이타주의를 명확히 제시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